



### 봄의 시작, 춘분(春分)의 제철음식

#### 썩은 산성식품과 같이 먹으면 건위제 역할을 해 증화시켜

올해 3월 20일은 춘분(春分)이다. 춘분은 경칩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우리 조상들에게는 중요한 날이었다. 이 춘분에 '농' 접미를 뺀데 풍황이나 구름의 색 등을 보고 그해 농사를 점쳤다고 한다. 예를 들면, 동풍이 불면 보릿값이 내리고 보리 풍년이 들며, 북풍이 불면 쌀이 귀하다고 믿었다. 또 구름의 색이 붉으면 가뭄, 황색이면 풍년이 된다고 내다봤다.

춘분은 봄이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키며 자연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삶에 큰 의미를 전하는 날이다. 3월 20일부터 약 15일 동안의 기간을 뜻하며 태양의 고기 절을 지나 절정에 이르러 남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여 북쪽을 향해 수직으로 이동하는 시기인데 이로써 기후 및 작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쳐 예부터 농사 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성 함유돼 있다. 또 이 시기에는 송편과 비슷하게 생긴 '머슴떡'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양반들이 겨우내 쉬고 있던 머슴들을 불러 일을 시키기 위해 술과 음식을 먹이기 위함이었다고 전해진다. 송편과 비슷하게 생긴 '머슴떡'은 나이대로 나눠 먹었다고 해 '나이떡'으로 불리기도 하며 아이들도 많이 먹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 나이떡은 남에게 주지 않고 먹어야 일 년 내내 굶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한다.

춘분에 먹어야 할 제철음식으로 썩, 냉이, 달래 등을 언급했는데 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늘, 당근과 더불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품인 썩은 특히 여성에게 좋은 보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살피보자.



1. 살균, 해독 작용; 썩의 엽록소가 피를 맑게 해주며 살균작용, 신진대사 촉진 등에 도움을 준다.

2. 노화방지; 다량의 비타민A와 C가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

3.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다.

4. 비만해소에 도움; 양질의 섬유질이 장의 연동운동과 적액분비를 원활하게 함.

5. 여성병에 특별한 효능;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과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으로 여성들의 생체리듬과 활성화에 큰 도움.

6. 위장을 건강하게; 썩의 혈액순환 기능은 위 점막의 혈행이 개선되도록 하고 다른 음식과 섞어 먹으면 알칼리성 음식인 썩이 산성 음식을 중화해 건위제 역할을 하므로 소화에 도움을 준다.

7. 심장 울렁거림을 해소한다.

8. 감기에 잘 걸릴 때 좋다.

9. 냉증으로 인한 관절통에 효과적이다.

10. 혈액순환 장애로 허리가 아플 때 좋다.\*

이승우 기자



### 해인사에 모셔졌던 해인

그런데 실제로 해인(海印)이 실물로 주조(鑄造)되어 해인사에 보관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석문의범(釋門儀範)』(1981)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밝혀진다.

--- 최근 여항(閔巷) 전설에 의하면 해인사에 는 해인(海印)이라는 것이 있는데, 차(次)를 사용하게 되면 호풍환우(呼風喚雨)와 이산초해(移山超海)를 임의로 하는 술법이 있는 것인데, 정만인(鄭萬仁)이 차(此)를 절거(竊去)하였다 한다. 도참지설(圖讖之說)에 미혹한 정만인이 전기(前記) 삼종보물(三種寶物) 중(中) 해인만을 절거(竊去)하였는가를 확지(確知)치 못하나, 화엄경관과 무공주(無孔珠)만이 지금 상전(相傳)되고 해인이 오무(烏無)인 것을 보아 의점(疑點)이 불무(不無)이며, 금(今)에 그 보물이 무(無)한 것만이 유(有)갑다. 연전(前年)에 찬송거사(餐松居士) 최기남(崔基南)이 차(此)를 주취(鑄就)하여 해인사에 봉안(奉安) 운(云)이나 기후하락(其後下落)은 미(未)可知이다. ---

최소한 1981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해인사에는 주물(鑄物)로 만든 해인이 엄연히 존재했었음이 위의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석문의범』의 편집자 안진호(安震湖)는 해인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으며, 해인사에 전해 내려오던 3대 보물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해인만 도둑맞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아찔든 근세에 최기남(崔基南)이라는 불교 신자가 해인사에 해인이 없다는 사실을 아쉽게 여겨 자신이 직접 해인을 만들어 해인사에 봉안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인용문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해인은 "바람과 비를 부르고, 산을 옮기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술법이 내재한 신기한 보물"이었음도 알 수 있다.

당시 해인사에 소장되었던 해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자료나 사진 등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논의과정에 힘입어 해인은 의상의 「해인도」에 나오는 도상을 새긴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화엄경」의 내용을 요약한 의상스님의 「해인도」에서 해인이라는 보물이 상상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알지 못하거나 관심조차 없다. 그들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보물인 해인이 해인사라는 성스러운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바로 여기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종교적 진실이 태어난다. 이제 「해인사」에는 해인이 있다. 라는 종교적 진실은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도 더욱더 참된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해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믿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해인이 실

물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했었던 것이라.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해인'으로 해인사를 만들었다. 이는 해인설화와 '해인'을 보관한 해인사라는 종교적 믿음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도록 하자.

### 해인사의 창건과정

해인사는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경상남도 합천군(陜川郡) 가야면(伽倻面) 치인리(繼仁里)에 있는 가야산(西남쪽 기슭)에 있는 사찰이다. 원래 치인리는 신라 말 최치원(崔致遠, 857 - ?)이 처자를 거느리고 가야산에 들어와서 종신(終身)하였으므로 치원리(致遠里)라고 불렀는데, 그 후 자연스럽게 치인리(致仁里)로 바뀌었다가, 1914년에 지금의 치인리(繼仁里)로 고쳐졌다고 한다.

해인사는 의상(義相)의 화엄(華嚴) 십찰(十刹) 가운데 하나이며,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봉안한 법보사찰(法寶寺刹)이며, 유명한 수도도량이기도 하다. 이 절은 신라 애장왕 때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이라는 두 스님이 창건하였다.

의상의 제자 신림(神琳)의 제자인 순응은 해공왕 2년(766)에 중국으로 구도의 길을 떠났다가, 수년 뒤에 귀국하여 가야산에서 정진하다가 애장왕 3년(802)부터 해인사 창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런데 사찰을 창건하기 위해 전념하던 순응이 갑자기 죽자, 이정이 그의 뒤를 이어 절을 완성하였다.

해인사의 창건주인 순응(順應)이 의상의 법손(法孫)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절 이름을 『화엄경(華嚴經)』의 해인삼매에 근거하여 해인사라고 명명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해인사는 화엄의 철학과 사상을 천명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화엄의 대도량이다. 이는 훗날 고려 태조의 귀의를 받았던 희랑(希朗)스님이 해인사에서 화엄 사상을 펼쳤는데 그 장소가 현재에도 희랑대(希朗臺)로 남아 있고, 해인사의 사간장경(寺刊藏經) 가운데 특히 화엄학과 관련된 문헌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결국 절 이름을 해인사(海印寺)라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 해인삼매에서 출정(出定)하시어 『화엄경』을 설하셨다는 불교의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찰은 소속 종파(宗派)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을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부처님이 의지한 삼매(三昧)의 이름 또는 경전의 이름에 따라 절 이름을 명명한다.

해인사는 해동(海東) 화엄종의 개창조(開創祖)인 의상대사의 법맥을 이은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므로, 『화엄경』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절 이름을 정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가야산(伽倻山) 해인사지(海印寺誌)』(1992)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또 신라의 의상대사가 당나라의 지엄법사에게 『화엄경』의 뜻을 전해 받고 본국에 돌아와서 '해인(海印)'을 신표로 법을 전할 적에 그 상수제자(上首弟子) 상원(相淵)에게 전하고, 상원은 신림(神琳)에게, 신림은 다시 순응(順應)에게 전하였으므로, 순응이 이 절을 짓고 화엄(華嚴)의 도량(道場)이라는 뜻에서 해인사(海印寺)라 이름한 것이다. ---



최치원 영정

한편 최치원이 신라 효공왕 4년(900)에 지은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新羅伽倻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에 기록되어 있는 해인사의 창건 연기(緣起)는 다음과 같다.

--- 순응대덕(順應大德)은 신림(神琳)에게 사사(師事)하였다. 대력(大曆) 초년(初年, 766년)에 마른 나무쪽에 의탁하여 중국으로 고승(高僧)이 거처하는 산을 찾아가 도를 구했다. --- 신라에 돌아오자 --- 드디어 정원(貞元) 18년(802) 10월 16일에 동지를 인출하여 여기에 건물을 세웠다. --- 이때에 성목태후(聖穆太后)께서 나라의 어머니로 군림하시면서 불교도들을 아들처럼 육성하였다. (절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공경하고 기뻐하시며 날절을 정하여 귀의하시고, 좋은 음식과 예물을 내리셨다. --- 그러나 스님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이정선벽(利貞禪伯)이 뒤를 이어 공적을 세웠다. ---

서기 900년에 작성된 최치원의 기록에 해인사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므로, 최소한 서기 900년 무렵부터는 이 절이 해인사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자

### 10.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비밀

오늘날 예수교인이라면 대부분 예수가 십자가 처형 후 그가 삼일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갔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언젠가 승천할 때처럼 공중의 구름을 타고 내려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늘로 올라가리라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겹새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자들과 밤새 탄방울이 땅바닥에 똑똑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눅22:42). 즉,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들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고 하여 로마군에 잡아가다 재판 받도록 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세 번이나 선언하며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다. 예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었다.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의 재판은 최종 결정권자이다. 그럼에도 대체사장과 유대인들이 찾아가 민란을 일으키므로 예수를 처형하게 했다. 대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권위와 군령이 서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재판에 대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의 부인이 전날 밤 꿈 이야기를 전하며, 예수는 선한 자요, 무고한 자라 하며 아무 상관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세 번에 걸쳐 예수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대체사장과 그의 수하들이 예수를 처형하라고 소동을 부리니 너희들 뜻대로 하라고 하며 예수를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예수가 재판을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 나가는 도중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대신하여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쫓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형수는 예수인데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길 가는 시골 사람을 잡아다가 억지로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따라 가게 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대를 보면 제6시부터 두 강도와 함께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흉포를 두른 예수를 보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며 희롱하고 농담을 한다. 그 후 어둠이 온 땅에 깔리기 시작한 제 구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소리 질러 가라사대 "하나님여, 하나님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또 한 번 더 큰 소리를 지른 후에 영혼이 떠났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외치는 소리와 전날 십자가의 잔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일이다. 십자가 처형을 받은 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고 기도한 예수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나님 독생자답고 구세주다운 태도일 것이다. 그 예로 사도행전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스테반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죽어갔다(행7:59).

사실 로마군에 잡혀가기 전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한 예수가 처형을 당했다면, 이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십자가 처형을 받으며 울부짖는 소리는 예수 대신 누군가 예수의 흉포를 둘러쓰고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자의 절규이며, 원망하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명기서와 갈라디아서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말씀이 있다(신2:23, 갈3:13).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처형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유대의 대체사장들의 계약으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영원히 유대인이 왕 노릇 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을 꾸었다면, 이제 그대로 십자가 사건의 조각이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 때 오실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질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십자가 처형 후의 시체를 누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보면 더욱 이상한 일이다. 물론 예수의 처형 장소도 부자 아리마데 요셉의 개인 정원 뒷동산에서 처

족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의 제자이자 공회 의원으로 빌라도와 친구인 부자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그때 빌라도는 벌써 예수가 죽었나 하는 의문을 남기며 섯 시체를 내어주자 그것을 받아 세마포로 둘러 자기가 미리 파놓은 돌무덤에 안치했다.

마태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가 사망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려고 무덤을 찾아갔다고 한다(마28:2).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번개 같고 눈부시게 환호를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아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살아나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 예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일러 준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환호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 알려주었다 하고(막16:5) 누가복음에는 환호 입은 두 사람이라 하였으며(눅24:4) 요한복음에는 환호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었다고 한다(요20:12). 이처럼 예수의 부활을 알려 준 내용이 두 천사라 하기도 하고, 한 청

년이라 하기도 하며, 두 사람이라 하여 제각각 기록이 다르다. 이때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천사들은 또 누구인가? 공중 하늘로 올라갔다는 예수와 두 천사는 지금 어느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대체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 보고할 때, 그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빌라도에게 고하고 하였다. 그럼에도 빌라도와 아리마데 요셉이나 누구도 이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한 사람은 없었다.

예수는 갈릴리에 약속한 산으로 먼저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과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은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눅24:50). 그들은 새로운 신화의 한 장면을 본 것이며, 이것으로 유대의 후손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왕 노릇 하리라는 십자가 사건의 비밀이 완성된 것이다.\*

一行徐韓

## 새로운 보혜사 성령의 새말씀 【13】